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11월 6일 (제87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파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인사살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적이 확실히 죽었는지 다시 확인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하기 때문이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검증하는 것은 이 세상과 내세의 성공비법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사람도 이리 굴러보고 저리 흔들어보고 써야 낭패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인정이나 동정 때문에, 학연이요 혈연 때문에, 더는 상대가 의심한다고 여길까봐 대중 보고 일을 결정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사람을 쓴다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평생 무거운 짐을 져야 할지 모른다.

확인과 의심은 분명 다르다. 확인이란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는 것이지만, 의심은 확실히 알아보지 않은 데서 오는 병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심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때론 의심의 눈초리도 필요하다. 나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목회 초기 나는 믿을 있다고 찾아오는 사람을 무조건 믿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무모한 일이었는지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 또한 빠른 교세확장으로 인해 신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전도사로 안수했다가 그들 때문에 맘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나는 확인과 점검, 검증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좋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쓸 때나 교회 행사나 일을 볼 때,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도 확인하고, 검증하고, 다시 점검한다.

큰 일하는 사람일수록 매사 냉철하게 확인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하셨고, 예수님도 베드로 사랑을 세 번씩 확인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요21:17).

확인에 확인, 점검에 점검, 검증에 검증만이 실패하지 않는 비법이요, 유비무환의 지혜이며, 최고의 병기다.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자

2016년 오늘, 진실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리라 믿는다.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호가 거센 회오리 속에 요동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비난과 질타는 쉽지만, 우리는 그 후를 생각해야 한다. 무너진 국가 리더십을 조속히 바로 세우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합쳐 지혜를 모아야 하고, 모든 불법과 비리는 낱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

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시종을 아시기에 우리를 기도로 준비시켰던 것이다. 하여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북 평화통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확신한다.

가장 먼저 국가 리더십이 조속히 자리 잡아 컨트론타워의 역할을 명확히 수행해야 한다. 국가 안정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국가 위정자들이 대권전략이나 각 당의 당리당략에 치우쳐 현 시국을 안일하게 대처하다가가는 모두가 공멸하는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라의 대선인지라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보다 더욱 참혹한 일들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그 누가 알았을까? 그들은 모두를 속이고 마음껏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헛되이 땅에 떨어질까? 목사님은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매일 아침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신다.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자!” 그 누구의 나라도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야할 터전이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국가의 안녕과 질서의 조속한 회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민적 아노미사태 또한 치유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핵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정권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한국경제를 살리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도 안 된다. 그야말로 국가적 대사(大事)들이 산적한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피파 흘려 이루어놓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단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기도였지만, 역시 외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적이 더 무섭다는 것

국가 위정자들, 법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하는 이유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해 아래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리므로 너희가 어두운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눅12:2~3).

최근 미국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 막론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 진흙탕 싸움으로 서로 앞치락뒤치락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다. 먼 나라의 일이지만,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

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반세기만에 세계 유래가 없이 변영 발전한 이 아름다운 나라가 속절없이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 민주화 및 산업화, 정말 그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이룬 나라인가! 분노와 절망이란 감정적 대응으로 국가의 미래를 그려쳐서는 안 된다.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냉철한 자세로 모두가 힘과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 오신 나라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모든 믿는 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추계산상집회

11월 28일(월) ~ 12월 1일(목), 장성예수중심기도원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2:1~5)



해 아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제가 70평생 가까이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밝혀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언젠가는 다 밝혀집니다. 무슨 일이든 진위여부는 가려집니다.

본시 하나님은 숨길 것이 없는 아름다운 에덴동산을 창조하여 첫 사람인 아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알기 전에는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은 후 죄에 빠지자 먼저 한 것이 숨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3:8).

여러분, 숨기는 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해 아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밝은 빛 아래서는 티끌조차도 다 보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그들은 누가 봐도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들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마23:27) 라고 하셨습니다. 외식과 가식으로 가장된 그들의 실체를 예수님은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사람에게 좋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들을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다윗은 완전범죄를 꿈꾸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목욕하던 밧세바, 곧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처에 반하여 그를 취하고 그가 잉태하자 다윗은 근심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 그의 아내와 동침케 하려 했으나 충직한 우리아는 전쟁 중에 안일을 꾀할 수 없다하여 이를 거부합니다. 난감해진 다윗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장을 세워 그를 전사하게 합니다. 누가 보아도 완전한 각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전쟁터의 군인들도 눈치 채지 못한 완전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다윗의 죄는 천하에 드러나고

잡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의 죄를 꾸짖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비유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죄는 사함을 받으나 대가는 치러야 하는 법, 이 악행으로 다윗은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그의 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첩이 백주에 동침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교훈이 되어 이 후 다윗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실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만 큼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 적어도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파악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분 면전에서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 적어도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 신임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위임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틈을 기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39:9). 요셉은 이 일로 누명을 뒤집어쓰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시며 만민 앞에서 그를 신원해주셨습니다. “여호와와의 눈은 어디 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15:3).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행5:1~2). 분명히 ‘감추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죠? 숨기는 것은 죄의 습성이라고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단번에 알아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드리고도 저주를 받아 내외가 한 장소에서 죽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성경은 죽은 사유에 대해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행5:4) 라고 말

의 체계도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도 천국도 곧 다 드러납니다. 하물며 인간의 행위 정도겠습니까? 그러니 생각하고 말해야 하고 행동하는 것에도 심사숙고하세요. 죄 짓지 마세요. 울무에 걸리지 않도록 일거수일투족에 주의하세요. 마귀는 여러분을 책잡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대선주자들이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들이 정말 오래 전에 했던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 그것이 중요한 시점에 그들의 뒷덜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눅8:17~18).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집 위에 전파되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면 떳떳하고 당당하다

그렇다고 나쁜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히 선을 행한 것도 다 드러납니다. 가끔 아무도 몰래 선행한 사람이 드러나 신문의 사회면을 훈훈하게 장식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딤후5:24~25).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전4:5). 올해 슬로건이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자’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되면 누구 앞에서든 어디에서든, 무슨 일에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2002년 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 때의 일이다. 세미나와 집회 일정이 모두 끝나자 피드백을 겸하여 운영위원들이 모여 잠시 좌담회를 가졌다. 그때 영어 통역을 담당 하였던 분께 문득 호기심이 일었다. 통역을 이유로 이렇게 장시간 의사가 자기 병원을 비울 수 있는 결단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는 말했다.

“믿음이죠. 믿음!”

임 박사님은 ‘성령의 역사’라는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한다. 그 이후 총회장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믿음과 상급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통역을 할 때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목도하며 머리끝까지 전율케 된다고 고백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자 참석한 이들 한 사람씩 각자가 총회장님에 대해 닮고 싶은 부분을 나누게 되었다. 이윽고 필자의 차례가 되었다.

“저는 목사님의 주를 향한 그 꺼지지 않는 열정을 본받고 싶어요. 총회장님은 마치... 에너지이저 같지 않나요?”

‘에너지이저’라는 표현에 좌중에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모두가 박수로 동감을 표시했다. 하기사 집회가 끝나자마자 우리 모두는 한 목소리로 앓는 소리를 했었다. 정말 녹록치 않은 강행군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수행하던 우리들이 이러한데 그 모든 일정을 직접 이끄셨던 총회장님은 어찌했을까! 그런데도 다음 날 끄떡없는 모습으로 신문 기사며, 비디오 편집을 챙기시는 모습에 모두가 혀를 내두를 수밖

에... 정말 그 열정, 변함없는 그 열정을 닮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껏 나를 시간을 쪼개가며, 기록하고 정리해보며 알차게 목회 현장을 지켜나갔다.

그런데 얼마 전의 일이다.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 간만에 처가를 찾는 필자에게 아내의 한 마디가 비수로 와서 박혔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 모습을 보니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

부정하고 싶었다. 목회현장을 모를 수 있으니 그 사정을 설명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가슴을 후비는 그 날카로운 비수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리라는 생각에 밤을 지새우며 침음(沈吟)을 삼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타성에 젖어 있었음을... 목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 속에서 어느 순간 감격이 사라지고, 샘솟던 에너지는 고갈되고, 그러다 이젠 주께서 원하시는 만큼에 이르지 못해 함람 미달의 수준에 이르러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영혼들을 향한 기도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부르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구령(敎靈)을 향한 절실함의 무게가 가벼워져 있었던 것이다. 목표를 도외시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열심히’만을 반복하고 있었던 탓이다.

“여호와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아보시느니라”(삼상2:3)고 말씀하고 있다. 지금 부끄럽지만 무엇보다 묵은 내 심령을 갈아엎을 때임을 고백한다.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어떤 양봉업자가 필리핀에 갔다가 사시 사철이 여름이라 온갖 꽃이 만발한 것을 보고 생각했다. ‘아하! 여기서 벌을 키우면 많은 꿀을 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시작한 양봉이 첫해에 벌통 100개에서 두 번 꿀을 따는 수확을 거두었다. 그런데 다음해에 문제가 생겼다. 꿀을 한번 밖에 못 딴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꿀이 거의 모이지 않아서 양봉업자는 3년 만에 아주 망하고 말았다.

이유는 이렇다. 꿀벌들이 꿀을 모으는 것은 꽃이 없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인데, 겨울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버려서 꿀을 모으지 않았던 것이다.

꿀은 겨울이라는 악조건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열매다. 사람의 삶도 그렇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 없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에게 닥쳐진 고통과 아픔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는 믿음으로 찬양한다. “큰 물결 일어나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나, 정작 자신의 몸 에 난 질병을 고치지 못해 하나님께 세 번 씩이나 고쳐 달라 간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기뻐함으로 자신의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꾀박과 곤란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끌어내린다고 고백한다(고후12:7~10).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 받을 때, 좌절 낙담이나 원망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그것이 은혜요 믿음이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사랑 & 행복 ::

:: 성경에세이 ::

울타리를 헐 때와 울타리를 칠 때

조급을 버리세요

아들아!

나는 액자 선물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문구는 항상 ‘울타리를 헐 때는 울타리 칠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도, 목회를 시작하는 제자들에게도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지.

‘울타리를 헐 때는 울타리 칠 때를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가정을 헐려는 순간에 처음 가정을 세웠을 때를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보라는 것 이란다.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으려고 할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울타리 칠 때의 마음과 정신을 잊어서’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지. 또한 목회가 어려울 때 처음 교회 간판을 걸고 입당 예배 드렸을 때의 마음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의미란다. 첫사랑, 처음 가졌던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울타리를 허는 위기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지. 헐기 전에 깨달으면 회생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

리라”(계2:5)고 말씀하신 거란다. 아내에 대한 첫 마음이 식으면 촛대가 옮겨가는 거지. 남편도 동일하단다. 더욱이 믿음이 처음 같지 않고 식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옮겨가는 비극을 맞게 된단다.

아들아!

그런데 말이다. 이 말을 뒤집어볼까? ‘울타리를 칠 때는 울타리 헐 때를 생각하라’고 말이다.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라는 말로 바뀌게 된단다.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또 다른 교훈이 숨어있지. “에이,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 하는 사람이 있단다. 임시방편, 임시변통하는 거 말이다. 그러면 결국 일을 두 번 하게 되고,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낭비하게 되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에는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철저히 계획하고 조사해서 일을 진행하면 실수나 실패가 없게 된단다. ‘빨리빨리’가 능사는 아니거든.

네 방에도 이 액자를 하나 걸어줘야겠구나. 패사에 첫 마음을 갖게 하고, 멀리보고 크게 생각하는 자가 되도록 말이다.

朋友

얼마 전 삼성 갤럭시노트7의 단종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삼성은 출시 전부터 노트7이 새 기술이 집약된 현존하는 최고의 핸드폰이 될 것이라 자부했지만, 시장선점을 위해 조급히 앞당겨 출시한 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조기단종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조급은 기업뿐만 아닌 개인의 삶에도 일체로 경계해야할 대상입니다. 조급은 강박증을 일으켜 몸과 마음도 지치게 하지만, 특히 신앙인의 믿음생활에 크게 방해되는 요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는 확신이 있다면, 그 분이 원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조급은 하나님께 구하다가도 자신의 욕심과 잘못된 열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에 끼워 맞추는 실수를 저지르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

을 얻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날로부터 25년 후 이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디게 응답하실 때도 많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는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 받은 후,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아를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방했지만, 노아는 마음에 조급하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믿으며 기다렸더니, 온 인류 중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조급하지 않는 기다림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 굳게 지켜 삶에 조급하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오롯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고은 khjc77@hanmail.net

:: 내가 매일 기쁘게 ::

:: 참된 깨달음 ::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는 대답은 잘하면서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안 듣는 것으로 유명하다. 주위 어른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시면 ‘네~네~’ 하면서 대답은 하지만, 정작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의사의 말, 약사의 말, 선배의 말, 교수의 말, 그리고 가끔은 부모님의 조언을 들어도 대답은 곧잘 하면서 시키는 대로는 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말은 듣지만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한다.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을 때가 많다.

요 며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다. 늘 그런 것처럼 의사와 약사의 조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당연히 차도는 없었고, 결국 엄마의 폭풍 잔소리를 서너 차례 들은 뒤에야 의사와 약사의 조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점차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자연스레 생활 습관도 좋은 쪽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전, 담당 전도사님의 전화를 받았다.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전도사님

의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나를 무시한다’는 글을 써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경고가 나를 무시할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생각해보니 의사와 약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은 일종의 경고였다. 하지만 나는 그 경고들을 무시해버렸고, 결국 그 경고들이 나를 무시하고로 병을 질질 끌고 다녔던 것이다. 전도사님은 약한 것들의 계계를 그냥 두지 말고 배운 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아침저녁으로 30분씩 나누어 기도를 하라는 말씀, 그리고 당신이 쓴 글대로 실천하라는 말씀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다.

통화 이후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해왔는지를 새삼 떠올려보니 얼굴이 빨개질 만큼 부끄러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떠올리며 늦은 감이 있지만 하나씩 실천에 옮

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음 주일,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와 안수를 받았다.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강한 의지와 더 이상 아프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다.

구습을 끊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밥 먹듯이 남의 말을 안 듣던 내가 갑자기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 사실 상상도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하려고 마음만 분주하여 고단했던 마르다처럼 살기 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의 발치에 앉았던 마리아처럼 살기 위해 노력해보고자 한다(눅10:38~42). 설령 그것이 내 지식과 경험과 배치되는 것이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자녀가 되고 싶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삼상15:22)는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도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속에 '힐링(Healing)'이란 단어가 외래어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힐링'이란 몸과 마음의 치유를 뜻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힐링 음악', '힐링 캠프', '힐링 음식', '힐링 여행'... 등, 삶에 지친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힐링'이란 단어만 붙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열고 관심을 갖고,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이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잠깐 일상의 삶을 잊고 쉼을 얻을 수는 있지만 참된 안식과 영혼의 만족함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힐링'이란 일시적으로 고통을 경감시키는 진통제나 아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고 수고와 슬픔뿐이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힐링'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임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게로 달려 나와 무거운 죄의 짐과 염려 걱정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 진정한 힐링을 누리십시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웃음은 보약이요 혈기는 독약이다

Laughter can heal everything. Being hot-blooded is like poison.
微笑是补药,血气是毒药。

☘ 웃음은 최고의 스펙이다

Laughter is a great asset.
微笑是最高能力。

:: Global Study ::

현대 기독교인의 순교의 삶

:: 생활속의 잠언 ::

지금은 멀리 말레이시아로 선교활동을 떠난 친구가 어느 날 해 준 이야기가 있었다. 그 친구 왈,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 초대 교회의 그들처럼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나 짐승에게 뜯겨죽는 순교의 길이 허락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활의 순교를 하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사도 바울의 ‘날마다 나를 쳐서 죽노라’는 성경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생활 가운데 순교의 삶을 실천하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면서 친구의 말이 떠오르고는 한다.

지금도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라 치면 소리 높여 한바탕 맞받아쳐야 속이 시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해야 하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은 알뜰하게 다 챙겨먹어야 하고, 언제부터인지 놀러가고 싶은 곳

이 있으면 주일이라도 개의치 않고 여행 가방을 꾸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자답을 해본다. 또,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미운 이웃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 뿐이겠는가? 생각해 보면 저절로 회개의 기도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인간의 소욕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란 멀고도 멀기만 하다. “오호라 곤고하도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으리오” 라고 읊조리듯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나만의 고통은 아니라고 애써 위로해 보지만,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간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죽음 같은 고통이

기도 하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찌를 수 있어야 하고, 순교자의 자세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텐데 참으로 나약한 인간의 의지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죽어야 하는 기독교인의 순교는 녹록치 않다. 오로지 기도와 주님게서 주신 능력과 말씀만이 생활 순교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생활의 순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번민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주님의 형상을 닮을 것이라 확신한다. 오늘도 주님게서는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과 잘라야 할 것을 말씀해주신다. 그 말씀이 심령에 진실로 와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신실한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순교자가 되어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싶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나를 차별화 하라!

고려대 강병화 교수가 17년간 전국을 다니며 채집한 야생들풀 100여종과 4,439종의 씨앗을 모아 종자은행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사의 끝에 실린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곳에 있으면 귀하게 되는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게 되면 잡초가 된답니다. 사실 보리밭에 난 밀처럼 자기 자리를 알지 못해 뽑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프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차별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똑같이 획일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시139:14).

1908년 나폴리언 힐(세계적인 성공학연구자 1883~1970)은 신출내기 기자 시절에 철강 왕 앤드루 카네기에게서 ‘보통사람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법칙을 찾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평생 세계 최대거부와 성공인들의 성공법칙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앤드루 카네기, 토머스 에디슨, 마셜필드, 윌리엄 듀런트, 월터 크라이슬러 등 세계 최대거부들의 경험에서 추출한 성공의 법칙을 밝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차별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별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바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숨겨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자질을 맘껏 펼쳐서 ‘나는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